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힘쓰는 효자군수 되겠다”

허필홍 홍천군수 인터뷰

허필홍 후보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천군수로 당선됐다.

홍천실버신문은 선거 후 지난 25일 허 군수를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 노인정책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 당선을 축하한다.

먼저 이번 선거를 통해 4년간 홍천군정을 이끌어갈 군수로 선택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에 군민들의 성원은 그간 군정에 대한 실망과 좌절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보내주신 무한의 신뢰와 질책, 그리고 소중한 조언을 받아 앞으로 통합의 군정을 펼쳐 지지하는 분들은 물론 반대하는 분들과도 함께 하여 모든 군민의 손을 잡고 모두의 군수가 되겠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충된 이견들은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여 하루빨리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홍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한마음으로 군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홍천군 인구가 7만이 넘은 지금, 앞으로 군정 방향은?

인근에 위치한 양평군이 10여 년 전 우리와 같은 7만 인구였는데 지금은 10만을 넘었다. 용문~홍천 철도가 건설되고 수도권 배후 힐링 도시로 가꾸어 홍천이 인구 10만이 넘어 홍천시가 되는 것이 소망하는 미래 모습이다.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선거 공약 중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제시를 했는데, 그 중 어르신을 위한 ‘건강100세 맞춤형 정책’으로 공공실버주택과 문화복지센터 건

건강 100세 맞춤형 정책 운영… 제2, 제3의 인생 위한 시책 제시



◇ 허필홍 홍천군수(왼쪽)가 홍천실버신문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홍천군민의 기대수명이 전국 상위지역보다 6.4년 짧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외롭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할 수 있도록 소재지 단위로 공동주택을 지어 드리는 시책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최대한 많은 세대의 공공 실버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문화복지센터는 홍천읍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이다.

원거리에 살아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우선 서석면과 남면, 서면 지역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수영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실을 설치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 위의 정책 외에 어르신을 위해 추진할 사업은?

홍천시네마에 어르신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전용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질환별 맞춤형 노인건강 돌보미제도를 시행하고 말벗도 우미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면단위 보건지소·진료소에 둘리치료사를 배치 운영할 것이며, 공동주거 공간 확보와 경로당에 실버요리사 배치, 공동급식 확대, 노인 일자리의 효율적인 확대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 임기동안 초심을 잊지 말고 지역민들을 위해 힘써주길 바라며 끝으로 홍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제2, 제3의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건강 100세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각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효자군수가 되겠다.

허남영 기자

◆ 홍천군노인복지관 7월 행사일정

일 시	장 소	내 용
2018.07.04.(수) 11:00~	홍천군노인복지관	KB국민건강종명학교 사업설명회
2018.07.27.(금) 11:30~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우체국과 함께하는 중복행사

CONTENTS

- 02 – 강원도의원, 홍천군의원 당선자
- 03 – 귀농·귀촌인 이야기
- 04 – 경로당 탐방
- 05 – 유적지 / 전설
- 06 – 다문화가정이야기
-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 08 – 기자칼럼
– 인생칼럼



도의원, 군의원 당선자

"어르신 복지정책 최우선! 열심히 뛰겠다!"

강원도의원



강원도의원 신영재

두 배 열심히 뛰는 가까운 도의원!

홍천 제1선거구에 당선된 신영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도의원으로 당선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선거였지만 도움을 주어 도의원으로 재선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부족한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앞으로 4년 동안 두 배 더 뛰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 홍천군을 강원도의 중심으로 끌어 올려 홍천발전을 이루고, 군민을 섬기며 일하는 가까운 도의원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복지선진국 되기 위해 어르신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강원도형 노인일자리 확보 및 활동비 개선, 경로당 운동기구 보강, 건강 보조기구 확대 보급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했다.

홍천발전 위해 봉사하는 적임자!



강원도의원 신도현

홍천 제2선거구에 당선된 신도현 의원은 “40여 년 군정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도의원 4년의 의정 경험을 이제는 홍천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책임감과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멋진 도의원이 되겠다.”며 당선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농촌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농촌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풍부한 경험으로 지역발전의 적임자라 자신 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노인복지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노인복지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로 풍족한 삶 영위, 경로당 시설 및 운동기구, 가전제품의 현대화, 어르신과 함께 하는 시책 발굴 등의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했다.

허남영 기자

홍천군의원



홍천군의원 김재근

군민과 늘 함께 하는 군의원

-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확대



홍천군의원 허남진

냉철함과 열정으로 역할 충실했

- 어르신 및 여성 행복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홍천군의원 정관교

홍천군 토박이로 부단히 노력

- 어르신을 공경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홍천군의원 공군오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활동

-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어르신을 위한 시책 시행



홍천군의원 이호열

홍천 및 지역발전에 앞장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복지를 위한 시책 시행



홍천군의원 나기호

약속사항 꼭 이행 각오

- 어르신을 위한 여가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홍천군의원 박영록

맞춤형 사업 시행 위해 노력

- 어르신을 위한 복지 및 생활 안정, 자금지원 정책



홍천군의원 최이경

군민의 대변인 역할 최선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독거 어르신을 위한 시책

박세구 기자

귀농·귀촌인 이야기(17) 서석면 어론리 이현영·이동석 씨 부부

황토집과 소품 가구 뿐 손수 지어… 뛰어난 손재주

서울에서 4년 전 젊은 나이에 서석면 황정골(어론리)에 와서 알콩달콩 사는 이현영(61) 씨와 남편 이동석(60) 씨를 찾았다.

이들 부부는 집을 지어 본 경험은 없지만 꼭 손수 집을 지어보고 싶다는 남편과 함께 내려와 황토와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지 4년이 되었다.

2층 구조로, 아래층은 거실과 주방, 아궁이로 불을 때서 바닥이 검게 탄 자국이 있는 황토방과 침대가 있는 작은방이 있다. 거실 옆으로 난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가면 거실에서 2층으로 뚫린 천정구조여서 아래층 거실이 내려다보이고 둉그렇게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며 테이블과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게 놓여 있다. 이런 소품 가구들도 모두 손수 만든 작품이라니 얼마나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었는지 눈으로 느껴졌다. 유리창은 닫힌 구조인 뒷산의 경치가 아름답게 들어왔다. 창틀엔 새들도 경치를 즐기는 듯 와서 놀고 배설물을 허락 없이 실례를 해놓았다. 해가 질 때와 뜰 때 햇살을 집안으로 끌어 들이는 천창도 있다.

2층의 난간은 구부러지고 가는 나무들을 서로 어울리게 붙여서 마치 춤추고 있는 예인들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한다.

지역봉사활동 참여, 즐겁고 바쁘게 살고 있어 행복 눈오면 큰일, 그러나 더 일찍 귀촌 못한 것이 후회

거실에는 한편에 벽난로가 한층 분위기를 내고 있고 거실 창으로 내다보이는 높고 먼 산은 하염없이 바라봐도 지루하지 않을 듯 한 아름다운 풍경이다. 집은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4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오직 부부의 손으로 지었다고 하니 놀랍고 신기했다.

황정골은 큰 도로에서 외길로 3km이상 들어가지만 조경하는 사람이 조경수를 잘 심어두어 가는 길이 아름다워서 행복감마저 들었다. 그러나 집을 2~300m 앞두고 비포장에 오르막길이 승용차로 가기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길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다. 포장을 하려고 해도 길에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분들이 승낙을 하지 않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나 겪는 시골의 고민이 이곳에 도 있었다.



◇ 이현영·이동석 씨 부부는 서석면으로 귀촌해 살고 있다.

황정골엔 30여 가구가 살고 있고, 원주민과 외지인들이 섞여 살지만 서로 잘 어울리고 반사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릴 때 빠지지 않고 다들 모인다고 하니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부러운 것도 잠시 눈이 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란다. 이 동네는 트랙터가 있는 집이 없고 이들 부부의 집은 가장 안쪽에 있어서 눈이 오면 직접 긴 골목길을 치워야 한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다.

도시에서 살 때는 남편의 모임에 아내가 동행했지만 이제 귀촌을 하고 보니 아내의 모임에 남편을 끼워 준다고 하며 웃는 부부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이들 부부는 “흙집마실”이란 상호로 된 장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매주를 말리고 발효시킬 창고도 함께 지었다.

남편은 전기기술자로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틈이 날 때 집을 짓고 있다. 또 나무로 하

는 모든 소품들을 잘 만들어서 아기자기한 찻상과 찻잔 받침이며 짱반들이 투박한 듯하지만 손때 묻은 오랜 그릇 같아서 정감이 있었다. 이웃에서 모터나 전기고장이 나면 가서 손봐준다. 젊은이가 없는 산골에 젊고 손재주 좋은 사람이 있으니 이웃들이 얼마나 좋아 할까 싶다.

아들 둘(24세와 19세)을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되는 엄마로서는 살던 서울에 두고 올 때 마음이 애틋했다고 한다. 남편 동석 씨는 오히려 더 일찍 자립할 수 있고 강하게 자란다고 아빠다운 말을 했다. 그러면서도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라고 말하며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는 것이다.

아내 현영 씨는 홍천 상생네트워크 회원으로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농업기술센터 여성 활동에도 참여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누는 일에 힘을 쓴다.

처음 홍천에 왔을 때 이 시골에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훌륭하고 멋진 여성들이 많고 재능 있는 여성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고 즐겁고 바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김순화 기자



경로당 탐방시리즈 (49) 홍천읍 갈마곡1리

올해 경로당 새롭게 단장, 75명 회원 모두 기대만발



◇ 홍천읍 갈마곡1리 경로당(회장 연제탁·앞줄 가운데)

홍천읍 갈마곡1리 경로당은 1997년 5월 준공하여 30여 년 동안 마을의 쉼터 역할을 했다. 경로당은 현재 연제탁(75) 회장을 비롯하여 이형기(70) 사무장 등 남자 29명, 여자 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가 높다.

요가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팔, 다리, 어깨 등 운동 효과를 특특히 보고 있다.

초창기에는 사물놀이와 민요도 배워 각종 대회에 참가했었는데 회원이 많이 늘어 장소가 협소

지낸다. 이러한 활동이 곧 회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했다.

경로당은 홍천읍이 주최한 2003년 상반기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했으며, 이후 각종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회원들은 게이트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게이트볼장이 멀리 있어 연습하기에 불편함이 많다고 했다.

장수회원으로는 박귀례(88) 씨, 이춘우(88) 씨, 이희대(86) 씨, 안찬수(85) 씨를 뽑았으며, 이들은 걷기운동을 꾸준히 하며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다. 아울러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 회장은 “새 경로당이 준공되면 체육시설도 함께 갖추어 회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가을에 회원 모두 단풍놀이에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건강히길 바란다.”고 했다.

갈마곡1리 경로당 회원 중 5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안태수 기자

스스로 마을 주변 청소 등 회원 간 단합·친목 최고 회원 건강 바람으로 올 가을 단풍놀이서 추억 쌓아

경로당 건물이 오래되어 회원들의 불편함이 많아 재건축 요청으로 금년에 경로당이 새롭게 지어질 예정이다. 매일 30여 명의 회원이 좁은 경로당에 모여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한다.

주1회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서 강사가 와서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참여

한 관계로 지금은 배우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 회원들은 새 경로당이 준공되면 사물놀이와 민요를 꼭 배우겠다고 한다.

경로당 회원은 남녀 구분 없이 마을 주변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번기 일손이 바쁠 때는 서로 도와주는 등 회원 간 친밀하게

◇ 경로당 임원 현황

직 책	성 명	연령	직업
회 장	연제탁	75	농업
부회장	김한태	81	농업
감 사	이갑복	82	주부
감 사	박재웅	77	농업
사무장	이형기	70	농업

☎ 033-433-536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상반기 우수참여자 선정

홍천군노인복지관은 6월 26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621명을 대상으로 크리스탈웨딩홀에서 상반기 평가회를 개최한 바, 노노케어활

동 정현숙(71) 씨, 복지시설활동 한인립(67) 씨, EM활용활동 김원일(77) 씨, 스쿨존 지킴활동 이영숙(71) 씨, 김종배(82) 씨, 보

육시설활동 유봉례(84) 씨, 휴쿠기 최경자(67) 씨가 우수참여자로 선정됐다.



정현숙(71)



한인립(67)



김원일(77)



이영숙(71)



김종배(82)



유봉례(84)



최경자(67)

유적지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542호 비로자나불,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로 가치 높아



◇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홍천 물걸리 사지 내 조성된 보호각 안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1971년 7월 7일 보물 제542호로 지정되었다.

이 불상은 발굴 조사 시 확인된 금당지의 삼존불 적십석을 통해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금당내의 본존으로 봉인되었던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로자나란 광명의 의미로 원래는 태양과 빛을 의미하였으나, 후에 불교의 근원적인 부처가 되었다.

통일 신라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비로자나불좌상은 광배는 없지만 강건하고 풍만한 체구, 넓은 무릎폭 등 전체적으로 안정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머리에는 높은 육계가 솟아 있고 약간 고개를 숙인 얼굴은 풍만하지만 턱이 뾰족하여 단정한 인상을 풍긴다.

양 어깨에서 무릎까지 옷 주름이 나타나 있으

나 다소 형식적으로 처리되어 무겁게 늘어진 느낌이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으고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일반적인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손 모양과는 반대로 되어 있으며 결기부좌 자세 또한 발바닥이 모두 밖으로 내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오른 발을 위로 하고 있는 다른 불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는 팔각연화좌로 상대 하대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중대에는 부처에게 공양을 드리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향로 등이 새겨져 있다.

불상의 규모가 높이 1.72m, 대좌 높이 0.62m로 통일신라 시대 불교문화 연구의 가치가 크다.

박영권 기자



전설 내촌면 가령폭포

아직도 깨끗한 폭포수와 자연스런 멋을 간직하고 있는 폭포



◇ 내촌면 가령폭포

홍천 9경 중 5경에 속한 가령폭포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백암산(1099m)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에는 개령골, 개령골, 와야골이라 했다. 와야는 ‘기와를 굽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가령골, 개령골은 ‘얼굴을 깨운다’는 뜻이다.

이곳은 둔지를 형성하고 있고 노송이 자리하고 성황당이 있다. 당산목이 있는 곳이다. 이 곳에 사람이 산 흔적이 있다. 논은 없고 밭은 화전을 일궈 호박,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경작하였다.

이 마을에는 고작 9가구만 살았다. 생명보존이 어려워 이사를 갔다. 한 집 두 집 다 이사를 가지고 현재에는 한 집도 없이 가령폭포만 남겨 두고 다 떠났다.

이들이 이사를 갈 때 심은 낙엽송과 자작나무만 있고 사람이 살던 흔적만 남아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사 간 원인은 산짐승이 농작물을 다 뒤집어 놓았고 동네에 우환이 들끓어서였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알랴 사람이 자꾸

죽는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무섭다하여 이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 지금 이 마을엔 한 집도 없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집만 남아 있을 때 심마니 한 분이 찾아와 예언하기를 가령골은 소망이 있고 영혼을 깨우는 곳이 된다고 했다. 심마니 예언대로 봄에는 산나물 채취, 여름에는 야생화 군락지,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 겨울에는 눈과 얼음의 자태 속에 겨우살이 채취하는 벌목꾼이 찾는 곳으로 4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해발 950m 어사리덕 작은 산골샘(약용샘물이 나오는 샘)에서 솟은 청정수가 400리 홍천강으로 발원하는 비례율 계곡의 무명담소와 가령폭포가 시원함을 더해준다. 약 50m 낭떠러지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가령폭포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와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와 버금가는 굉음을 내는 폭포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홍천의 명소가 되었다.

이광명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48) 홍천군 북방면 최은애(50) 씨

‘강원도 다문화가족 정보화 제전’서 대상, 가족사랑 남달라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중국에서 시집와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에 살고 있는 최은애(50) 씨는 “시집와서 바쁘게 사느라 12년간 친정을 못 갔다.”고 했다.

그는 중국 흑룡강성 학강시에서 아버지 최호근(사망) 씨와 어머니 이영자(75) 씨의 4녀 중 맨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전기수리공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했고 어머니는 공직기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정년퇴직했다. 경북 문경이 고향인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가족을 데리고 돈 벌러 중국에 갔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오지 못해 그곳에서 살게 됐다. 번 돈은 해방과 함께 휴지가 됐고 고향에 올 수 없어 할아버지는 그 충격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외할아버지도 한국인으로 중국에서 외할머니와 결혼했다.

그는 학강시 간호사학교를 졸업 후 실습 1년을 마치고 다시 의학공부를 해 하얼빈의대에 진학했다. 졸업 후 병원 신경내과에 근무했는데 뇌출혈 등 위급환자가 발생해 야간근무가 잦고 항상 비상대기 상태였다. 밤에 나가 일하는 딸이 안쓰러워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다.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워 아버지는 딸이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바랐고 그 기회에 한국에 오려했다. 아버지는 부모에게 배워 한국어를 알고 있었다.

운전면허·바리스타 취득, 요양보호사 등 공부 중, 다방면 똑순이 한국에 시집와 사는 외국인들 적극 도와, 봉사로 보답하고 싶어

1997년 11월 19일 지인의 소개로 학강에서 남편(이관호·58)을 만났다. 아버지가 남편의 거친 손을 보고 열심히 일한 손이라고 마음에 들어 했다. 부모 모두 침례교회 목사였는데 남편을 한 달간 교회에서 지내게 했다.

1998년 4월 3일 한국에 왔다. 김포공항에서 처음 본 한국의 하늘은 희뿌연 중국과 달리 파랗고 화창했다. “나의 인생도 저 하늘처럼 파랗고 화창한 봄날이기를!” 바랐다. 순간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 먼 땅에 혼자 오는 것이 슬펐다. 희망과 슬픔이 함께 교차했다.

남편은 아버지 이삼진(사망) 씨와 어머니 정종순(85) 씨의 3남 1녀 중 셋째다. 중학교 졸업 후 농토를 임대해 2천 평의 논농사를 지으며 홍천에 있는 영안모자공장에서 15년간 완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현재의 집을 마련했고 이후 서울에서 아크릴 만드는 직장에 7년 다니다 현재는 홍천플룸에



◇ 최은애 씨가 밝게 웃고 있다.

15년째 다니고 있다.

1998년 5월 17일 홍천농협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해 연말 딸(미선·21)을 조산했고 이어 아들(경철·19)을 낳았다. 결혼 후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그는 다슬기 해장국집에서 다슬기 알맹이 빼는 일을 했다. 손놀림이 빨라 해장국집 주인은 그가 임신 후에도 계속 일을 하도록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왔다.

중국어 교육, 중도입국자녀 학습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바리스타 2급자격증을 취득했고 올해 8월 27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내년에 제과제빵사 자격증 취득을 계획 중이다.

2001년 2월 그의 아버지가 꿈에 그리던 한국에 오려다 격한 기쁨의 충격으로 중국내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가 아들을 출산한지 얼마 안 되어 친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에 연락을 하니 장례를 치르고 난 뒀었다.

한국에 와서 임신 4개월 되던 1998년 8월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친정을 다녀온 뒤 바쁜 생활로 12년을 고향에 못 갔다. 강원도로부터 고향 방문 항공권을 받아 2010년 8월 남편, 자녀들과 함께 친정을 다녀왔다.

그는 “2012년 강원도 다문화가족 정보화 제전” 행사에 참가해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메시지 콘테스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2009년 2월 2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고, 강원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제출 중에 있다. 현재 고려대 사이버대학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고 한국어 박사학위를 받는 게 목표다.

그가 처음 시집을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원돼 있어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에 시집와 사는 외국인들을 적극 도와주고 봉사해, 받은 것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이옥희 기자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50)

홍천국유림관리소

전국 가장 넓은 산림 경영, ‘한그루 묘목도 소중히 다뤄 보답’ 이구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호)는 산림청의 북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으로 8개의 팀(운영지원팀, 보호관리팀, 자원조성팀,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횡성경영팀, 서석경영팀, 매희산경영팀)으로 구성되어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관할구역은 강원도 영서 내륙지방의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이며 119,064ha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어 전국 국유림관리소 중 가장 넓은 산림을 경영, 관리하고 있다.

홍천군의 경우 산림면적은 행정구역면적의 84%이며, 그중 국유림이 56%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진화, 산림환경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산림 종합무선통신망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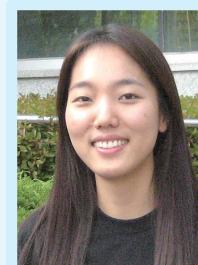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며, 임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해 목재 및 기타 임산물(송이, 수액 등)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 국유림 산지 이용 구분 및 산지 관리 업무, 등산로 지정·정비 등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운영을 통해 관할구역 국유림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국유림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사유림 매수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산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칭찬릴레이를 시작했다.

운영지원팀의 김현실 주무관이 용정숙(49) 주무관을 칭찬했다. 홍천 태생으로 입사 24년차의 베테랑인 용 주무관은 운영지원팀에서 회계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도 시설, 사방사업, 숲 가꾸기(조림) 사업 등의 계약 체결 시에는 변화된 법 적용을 투명하게 하는데 일부는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 계약을 한다. 주임으로서 팀장과 팀원들의 허리역할을 하며 원활한 소통에 힘쓰고 있다. 직원들과 함께 지역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데, 농촌

일손 돋기(쓰러진 벼 세우기 등), 호수의 집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에 참여하고 있다. 호수의 집은 매년 추석과 설 명절 때 생필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모은 성금도 전달한다. 월1회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청소년자립관에서 점심식사봉사도 하고 있다.



용정숙 주무관



김주현 주무관



유재훈 주무관



한지원 주무관

용정숙 주무관 - 팀내 원활한 소통위한 허리역할 담당, 지역봉사활동 솔선수범

김주현 주무관 - 취약계층 목재전달 등 건강한 숲가꾸기 업무 뿐만 아니라 활동

유재훈 주무관 - 입사시 산불발생현장 투입 기억생생, 언제나 산불예방에 만전

한지원 주무관 - 출장은 내 일상, 고로쇠수액 채취 승인, 산촌주민소득증대 기여

용 주무관은 자원조성팀의 김주현(29) 주무관을 칭찬했다. 지난해 10월에 입사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담당하며 최 일선에서 현장을 오가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간벌을 해서 나오는 나무는 목재로 판매도 하고 판매할 수 없는 나무는 매년 10여 곳에 땔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설맞이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 때는 사회취약계층과 공공복지시설에 목재 10톤과 위문품(직원·영림단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을 전달했다.

4월에는 원주에서 북부지방산림청이 주관한 ‘식목일 기간 나무심기 행사’에 유치원, 중·고등학생, 산림청 전·현직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을 담당했다. 그는 “운두령 양묘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국유림에 심고,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등의 작업을 통해 건강한 숲 가꾸기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유재훈(33) 주무관을 칭찬했다. 보호관리팀에서 산림무선통신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 주무관은 지난 해 4월에 입사했다. 입사 전에는 육군 장교로 10여 년 동안 복무한 후 2016년 9월에 퇴역한 태권도 4단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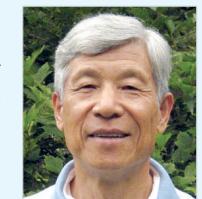
관출신으로 성격이 활발하고 밝으며 강인하다. 노래 실력이 수준급이며, 직원들 간에 분위기 메이커로서 행사 때마다 사회를 본다. 금년 2월 화촌면 굽운리에서 거행된 ‘강원도 산불진화훈련’ 때는 성우역할을 했다. 국유림 관리에는 드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산림병해충 예찰, 사업지 파악, 산불 예방 등에 활용한다. 산불 전문진화대원에게는 개인별로 보호단말기가 지급되어 실시간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결돼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는 “입사 3일 만에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산불진화작업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산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유 주무관은 한지원(30) 주무관을 칭찬했다. 금년 1월에 입사해서 산림경영팀에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 한 주무관은 산림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등산로, 데크, 휴양림 등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야 돼서 출장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지만 일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유아숲체험원도 담당하고 있는데, 삼마치 유아숲체험원(홍천읍 삼마치리), 가리산 유아숲체험원(화촌면 풍천리), 초원리 화백나무 유아숲체험원(횡성 공근면 초원리) 등 3곳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숲속의 체험활동(숲속 유치원, 등산, 트랙킹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년 2월 국유림보호협약체결 5개 마을에 고로쇠수액 채취를 승인하여 농한기인 2~3월에 수액을 채취해서 산촌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했다. 그는 “입사한지 일주일도 안 되어 추운 겨울 눈 쌓인 돌산(서석)에 올라가 고로쇠 측량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활하게 웃었다.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은 청정지역인 홍천에서 국유림을 관리하는 일이 행복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한 그루의 묘목도 소중하게 가꿔서 주민에게 보답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최정규 기자

기자칼럼



최정규

홍천실버신문기자

얼마 전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지인이 뺑소니 운전으로 고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돼서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졸음운전을 하다 다른 대형차의 백미러를 가볍게 스친 듯 했는데 별일이 없는 것 같아 무심코 지나쳤다가 뺑소니 운전으로 고발된 것이다. 도착한 후에라도 민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경찰에 미리 신고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일을 크게 키운 것이다. 지난달에는 홍천에서 용인에 갈 일이 있어 승용차로 영동고속도로 여주 부근을 지

나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평소 영동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없다고 알고 있었기에 현지 단속경찰의 말을 듣고서야 지난해 7월부터 여주~신갈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겼고 1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운전에 집중해서 도로상황을 잘 파악했더라면 버스전용차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무심코 운전해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이었다. 운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차의 운전자가 나를 보고 또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나 또한 완전무결하게 운전하는 모범운전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편도 1차로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뒤차는 신경 쓰지 않고 기어가듯이 천천히 갈 때, 주차장에서 돌아나갈 틈도 두지 않고 통로를 꽉 막아버렸을 때, 무질서하게 아무데나 주차하였을 때,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늦게 켜서 반대 차

의 사람도 운전대에만 앉으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다. 과속을 하고 급제동 급가속을 하고 끼어들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마구 욕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다소 풀리겠지만 심하게 욕을 하고나면 자신이 좀 교양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내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하고 있는 행동을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러한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소통은 사람들끼리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들끼리도 잘해야 사고도 예방하고 운전도 즐겁게 할 수

있다. 방향지시등, 비상등 사용에 인색하지 말고 적시에 잘 사용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운전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상황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오늘도 나는 운전하면서 “나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운전에만 전념할 것이며 나의 뒤차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오히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례들이다. 평소에는 느긋한 성격

소통과 배려는 운전할 때도 필요하다

전을 하다보면 운전에만 집중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골똘히 할 때가 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도 있지만 이런 때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하면서 서로를 짜증나게 만드는 상황도 많다. 앞에 가는 차의 운전자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삿대질을 하면서

로의 좌회전 차량을 기다리게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옆 차선을 물고 달려서 다른 차에게 위험을 느끼게 했을 때, 도로변에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하고 있는 차를 봤을 때 그냥 참고 지나치기가 힘들다. 이런 사례들은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오히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례들이다. 평소에는 느긋한 성격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것인지, 세월이라는 것이 빨리 가는 건지, 누구나 바쁘다고들 한다. 그 와중에 어쩌다 거울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오래전이지만 그때는 60을 잇 넘기신 나이에 돌아가신 형님이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다시 보니 그건 형님이 아닌 바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건데

내가 나를 몰라보고 형님이라고 놀라다니 쓴 웃음만 나왔다.

내가 어느새 형님이 되어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이를 잊고 바쁘게 살았다는 것인데, 저 모습이 되기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형님같이 되어있는 지금, 형님같이 마음 씽씽이 넉넉하게 가솔을 살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가? 나에게 다시 묻곤 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아버지는 엄하시면서도 인자하셨고, 모습 전체에서 풍기는 위엄이 학자 같으셨는데, 지금의 거울 속에는 아버지 같긴 한데 덕도 없고 푸근함도 보이지 않고 전체에서 풍기는 위엄 같은 건 찾을 수 없는 그냥 늙어가는 한 남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지금의 나인데 벌써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다니 가슴은 영글지 않은 쪽정이 매

을 조용히 감으시는 것으로 태초에 오신 그곳이 어딘지는 몰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거울 속에 나를 아버지로 착각하듯이 나는 아버지로 살고 있다. 조상을 쟁기고, 아내와 함께 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든든한 기둥으로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과 벽이 되어 제구실 제대로 하며 살아왔는가? 혹여 비바람이 새서 가족이 추위에 떨게 하거나 않았는지? 든든한 기

둥노릇을 못해서 가족이 불안하지는 않았는지 이웃에라도 덕을 베풀며 살았는지, 나의 아버지처럼 최고의 아

버지로 살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가슴이 아늘해진다. 언제 보아도 당당하게 내가 있는 거울을 보고 싶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언제나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 속에서 나를 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거울 속에 아버지 모습

어떤 날은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올해의 연도 숫자에 출생연도를 빼고 배냇나이 하나를 더해서 우리나라의 산출해보는 바보짓도 가끔은 하면서 사는데 내가 왜 이리 명청해지고 있는지 실소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거울 속에 형님이 아닌 아

달고 찬바람에 내맡겨 휘둘리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순간모습은 모진세월 고생의 흔적 같은 얼굴에 잔주름이 곱게 펴지면서, 홍조가 띵어지고 얹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던 모습은 지켜보던 모두를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눈